

광남시론

광주·전남의 하늘길부터 열자

위인백

(사)한국인권교육원 이사장



국가의 운명을 흔드는 지도자의 말발로 국론이 양분된 채 시국은 견집을 수 없는 난세이고, 미국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관세 폭탄이 우려된 채 국제수지는 날로 떨어져 서민경제까지 파헤쳐 가고 있다.

또 친위쿠데타 내란에 대한 돌아가는 양상은 상식을 벗어나면서 국민적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대도 역사는 돌고 돌면서 정의를 필승이고 사법기록이니 오늘은 광주·전남의 현안에 대해서 논해보자 한다.

경제활동이나 문화의 교류 등이 전 세계를 무대로 이뤄지는 글로벌시대를 맞이한 세계는 국가간 경쟁에서 도시 간 경쟁으로 변화되면서 도시가 갖고 있는 역사와 사회적 생산이나 경제활동의 토대를 형성하는 기초적인 인프라를 비롯한 도시의 규모만이 경쟁력이 아니라 고속 이동, 고도 정보화의 도래와 함께 국경을 넘는 교류와 여행이 보편화되면서 대도시나 지역은 접근성이 빠른 하늘길의 공항이 필수적이다.

광주·전남의 유일한 국제선 관문인 무안국제공항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던 중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2216편이 태국에서 출발 무안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에 랜딩기어를 내리지 못해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를 이탈해 철근 콘크리트 둔덕에 충돌하면서 기체가 폭발함으로써 승객과 승무원 179명이 사망한 안타까운 대형 항공사고가 발생했다.

활주로와 콘크리트 둔덕에 대한 시설도 문제지만, 무안

국제공항과 광주공항의 통합 문제가 20년이 돼가도록 답보상태로 줄다리길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고로 무안국제공항은 폐쇄되고 아직껏 개항이 언제 될지 모른 채 하세월로 지역 소이거주의마져 마냥 팽배해지면서 시도민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광주시는 임시로 광주공항 국제선 운영을 추구하는 적극적인 행정과 늦게나마 전남도의 협조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도 가시적인 효과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정치권이 나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지역민들도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고 있음을 새겨보아야 할 것이다.

국도의 서남권 관문인 무안국제공항의 운영이 중단되면서 지역 여행항공업계는 위기에 처한 채 500여 업체에서 2만 여명의 여행 취소와 1~2월만 300억원대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

여기에 폐쇄 기간이 연말까지 연장되면서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위협과 지역 관광업 붕괴까지 우려된 상황인데 어찌 이게 여행항공업계의 문제일 것인가!

올해는 광주 방문의 해로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세계인관도시포럼, 등 굵직한 국제행사가 광주에서 개최될 계획에 있고, 우리 지역 출신인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까지 있어서 많은 외국인 관광객과 선수단의 광주·전남방문이 예정되며 정치·경제 주체들이 힘을 모아주길 바라면서 중국엔 무안공항을 국도의 서남권 관문 공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효과가 없어 안타깝다.

원래가 하나였고, 언젠가는 하나가 될 광주·전남의 상

생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떠나없이 지혜를 모으고 힘을 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필자는 며칠 전 광주연구원 임원회의에 앞선 차담에서 외지에서 스카우트 된 최치국 연구원장이 도시의 발전과 성장에 중요한 공항 문제에 대해서 지역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시도민들이 너무 관심을 두지 않더라 이야기 들었고, 대차나 우리 시도민들은 정치 현안엔 여타 지역보다 앞장서면서도 국제공항 문제를 비롯해 우리 지역 경제문제와 직결된 사항은 도의시했구나 한 마음이 컸다.

그때 생각해 보니 요즘 탄핵정국을 맞아 수많은 시도민이 모이는 집회에서 한 번쯤은 국제공항 문제를 비롯한 지역 경제문제도 언급하면 사·도정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과 함께 한편으로 만약 이러한 현안을 일명 태극기부대가 먼저 주장한다면 그 파장이 클 것이라 우려는 필자만의 생각이 아니길 바란다.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은 하나하나 추진돼 가는데 광주·전남의 미래와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공항 통합 문제나 임시공항 문제 등은 신속한 대응으로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저것 재다가 뒤늦게야 협력한다고 하면 정책의 실효성이 아니라 추진력은 물론 다른 지역과의 경쟁력도 떨어지니 누구보다 먼저 정치권이 앞장서야 하는데 누구 하나 발 벗고 나서서 의뢰도 안 보인다.

특히 전남도와 무안군은 광주·전남의 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어나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대구와 경북이 합의했고 부산과 경남도 합의를 이루었는데, 우리 지역은 지도자들 역량 문제인지, 시도민이 문제인지 소지역주의에 함몰되면 경제발전은 요원해지고 떠나는 지역이 될 것이다.

기고

전통시장, 이제 '즐거움'을 팔아야 한다

김주용

전남도의원



디지털 전환 시대, 전통시장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온라인 쇼핑은 더 이상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모바일 앱 하나로 전국의 상품을 집 앞까지 배송받는 시대에, 사람들이 굳이 전통시장을 찾은 이유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아무리 가격이 저렴하고 신선하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선택받기 어렵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시설을 개선하고, 주차장을 확충하고, 결제 시스템을 디지털화했다.

물론 이런 변화는 의미 있다. 하지만 시장이 다시 살아나지 않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 전통시장이 소비자의 '즐거움'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소비자는 단순한 편리함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감정을 자극하는 경험이 있어야 발걸음이 움직인다. 지금 전통시장에 필요한 건 기존 사고방식의 전환이다. 시장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야 한다. 생필품을 싸게 사는 곳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가고 싶은 공간', '머무르고 싶은 공간'으로 재구성돼야 한다. 이 지점에서 핵심이 되는 개념이 바로 '유회적 소평동기'다.

유회적 소평동기란, 소평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 감정적 만족, 일상에서 벗어난 자극 등을 의미한다. 물건들

시는 행위 자체보다, 그 공간에서 얻는 경험이 더 큰 목적이 되는 것이다.

예기치 않은 불거리, 사람들과의 교류, 감각적인 자극, 활기찬 분위기 같은 것들이 소비자의 내면을 자극하고, 결국 시장으로 발걸음을 유도한다.

하지만 이런 감성을 단순한 마케팅 이벤트 몇 개로 채울 수는 없다. 전통시장을 유회적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시장 공간 전체를 유회적 동기 중심으로 설계하고, 상인과 방문객이 함께 만들어가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예를 들어, 어린이 동반 가족을 위한 체험 부스, 청년 상인의 스토리텔링 콘텐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쿠킹 클래스, 로컬투어 연계 프로그램 등은 모두 유회적 소평 동기를 자극하는 콘텐츠다. 시장을 구성하는 요소 하나하나가 '즐거움 중심'으로 바뀌어야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

전남 강진군의 마량농토수산시장은 이런 변화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이 시장은 매주 토요일마다 지역 특산물과 문화 콘텐츠를 결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110m 길이의 LED 바다 분수, 미디어 파사드, 에어바운스 놀이시설 같은 불거리와, 가요 경연대회 '노래가 좋다면' 같은 참여 콘텐츠가 시장에 활기를 더한다. 단순한 수산물 판매에서 벗어나, 가족 나들이 공간이자 문화체험 장소로 확장된 것이다.

실제 효과도 뚜렷하다. 마량농토수산시장은 개장 이후

2023년까지 105만 명이 넘는 방문객을 끌어들이고, 총매출 100억 원을 돌파했다. 지역 시장이 유회적 소평 경험을 제공할 때, 소비자와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워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이처럼 사람들이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유회적 소평동기'는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다. 누군가는 일상에서 벗어난 새로운 자극을 원하고, 누군가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자체를 즐긴다.

어떤 사람은 단지 기본 전환이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시장을 찾고, 또 누군가는 요즘 어떤 물건이 유행하는지 구경하러 온다. 누군가는 선물 하나를 고르면서 뿌듯함을 느끼고, 또 다른 누군가는 할인 상품을 발견했을 때의 만족감 때문에 다시 찾게 된다.

사람들이 시장에 오는 이유는 이렇게 제각각이다. 중요한 건, 시장이 이처럼 다양한 즐거움의 감각들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이다. 전통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으려면, 단순한 상품 판매를 넘어 이 감성적 동기를 품을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제 전통시장은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경험을 파는 공간'으로 바뀌어야 한다.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공간, 머무르고 싶은 공간, 이야기하고 싶은 공간이 되어야 한다. 전통시장이 다시 사랑을 끌어들이고, 지역을 살리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 '즐거움'의 동기를 제대로 읽고 반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취재수첩

웃돈 거래에 씩씩한 팬심

송태영

지역사회부 차장대우



올해 프로야구는 시범경기부터 열기가 예사롭지 않다. 지난 15~16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타이거즈와 삼성라이온즈전에 야구팬 3만286명이 관중석을 가득 메우며 경기를 지켜냈다. 이 같은 야구장 분위기에 해설위원과 캐스터는 경기 중계 중 '낯설

다', '과거에는 사람이 없어 통화 소리까지 들린다' 등 이야기를 꺼냈다.

과거 팬일·주말 상관없이 모든 좌석이 무료였지만 정규시즌이 아니기에 시범경기부터 많은 팬이 찾지 않았다. 하지만 정규시즌 개막에 앞서 야구팬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팬들의 관심이 뜨겁다.

특히 지난해 KIA타이거즈는 통합우승을 차지하며 한국시리즈 불패 신화를 증명한 가운데 올해 2년 연속 통합우승이라는 목표로 다시 한번 흥행몰이를 예고하고 있다.

높은 관심과 열기는 티켓에매부터 증명됐다. 지난 15일 오전 11시 구단 공식 앱과 티켓링크 홈페이지에서 오는 22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KIA타이거즈와 NC다이노스의 프로야구 정규시즌 개막전 예매가 진행됐다. 많은 팬이 오전 11시 정각에 맞춰 '예매하기' 버튼을 눌렀지만 순식간에 매진됐다.

티켓의 정상가는 주말(금요일·공휴일) 정규시즌의 일반석(K9·K8·K5·EV·외야석)의 경우 성인 기준 1만3000원부터 2만원까지로 안내됐다. 특별석(챔피언석·테이블석·응원특별석·서프라이즈석·스카이박스 등) 요금은 성인 기준 1만9000원부터 8만5000원까지로 책정됐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장담 10만~17만원에 거래되며 순식간에 웃돈이 붙었다.

암표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딱딱하다. 경기를 보려는 팬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제값에 티켓을 구매해야 약속한 값을 줄 수 있다. 수요가 없으면 공급은 사라지기 때문이다. 제값에 경기를 볼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한다.

사설

'청정 전남'서 구제역 발생... 확산 막아야

'구제역 청정지역'인 전남에서 구제역 발생이 처음 확인됐다. 지난 13일 발생한 뒤 현재까지 2개 군 5곳 농장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겨울, 영암 등 5개 군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도 아직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제역까지 발생해 전남지역 축산 농가들이 초긴장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영암군 도포면의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주변 농가와 무안군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날 현재까지 확인된 곳은 영암 4건과 무안 1건 등 총 5건이며 해당 농가에서 사육 중인 한우 등 344마리를 살처분했다.

전남도와 영암군 등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영암과 인접한 무안 등 7개 시·군의 구제역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심각으로 상향하고 농장 종사자와 차량 등에 대해 48시간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99개 공동 방제단과 시·군 소독차량을 모두 동원해 소독을 한층 강화하고, 7개 시·군 우재류 농장에 대해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소, 돼지, 양, 염소 및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 감염되는 질병인 구제역이 1종 가족 전염병으로 지정될 정도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는 점이다.

특히 감염된 동물은 인술, 혀, 잇몸, 코 등에 물질이 생기며 체온 상승과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난 후 심하게 앓거나 죽게 이르는 무서운 병인 것이다.

구제역은 지난 2000년 국내에서 처음 확인된 이래 2023년까지 전국 13개 시·도에서 소 153건, 돼지 280건, 염소 2건 등 총 435건이 발생했고 전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영암에서 처음 확인된 전염성이 강한 고병원성 조류독감도 5건이나 발생해 육용 오리 등 8만여 마리를 살처분했다. 현재는 소강 상태다.

긴장을 늦추면 급속도로 확산되는 전염성이 강한 병인 구제역의 확산을 막기 위해 관계기관의 체계적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강진 '반값여행' 인기... 지역경제도 견인

강진군이 추진하고 있는 '반값 여행'이 국내 최고의 여행 키워드로 뜨고 있다. 하루 평균 300명 이상이 사전 신청을 하고 290통 이상의 관광문의전화도 쇄도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17일 강진군에 따르면 내수 부진과 경제불황 극복,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한 '강진 누구나 반값 여행'은 강진에서 여행한 비용의 50%를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관광경제 정책이다.

아니 단순 관광 인센티브책을 넘어 1~3차 산업까지 전 업종 소비자의 절반을 돌려주는 강진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정책으로 관광객 만족도 또한 높다.

군은 지난해 문제점을 보완해 올해는 혜택을 더욱 늘렸다. 기존 개인당 최대 5만원의 혜택을 10만원으로, 지일 횡수도 개인당 2회에서 4회로 확대했고 2인 이상은 여행경비의 50% 최대 20만원까지 되돌려 주기로 한 것이다. 실제로 올들어 지난 10월까지 69일만 무려 2만844팀(하루 평균 302명)이 사전신청을 했다.

또 이 기간 1만988팀(하루평균 159명)이 강진을 찾아 28억9000만원을 소비하고 13억2000만원을 모바일 상품권으로 돌려받았다. 정산금을 돌려받은 이들은 이중 5억4000만원을 사용했다. 단기간에 강진에서 34억 3000만원을 소비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반값 여행 참여자가 강진에서 47억원을 소비했고 돌려받은 지원금 22억원을 강진 농·특산물 구매 등에 사용했다. 결과적으로 총 69억원이 강진에서 소비돼 지역 내 1800개 이상 업체가 반값 수혜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반값여행은 관광객들에게는 절약한 여행경비로 강진군의 특산물 등을 구매할 수 있고 강진군 등은 관광이 활성화돼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 넣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정책이라는 얘기다.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도 잇따라 반값 여행으로 강진을 방문한 경남 하동군과 경남 산청군, 그리고 완도군은 이와 유사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행 2년만에 놀랄만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반값여행'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기대한다.

회장·발행인·편집인 전용준	논설실장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처 부 370-7010 경 제 부 370-7020 사회교육부 370-7030 지역사회부 370-7040 문화체육부 370-7234 편 집 부 370-7082 사 진 부 370-7050	논 설 실 370-7060 뉴미디어본부 370-7222 임 원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02-978-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